

해방 후 창군기 한국군의 평생교육 경향분석

박효선(국방부, 평생학습정책담당)*

요약

이 연구는 창군기인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 군에서 추진되어 온 군 평생교육 경향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 역할과 의의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군의 평생교육에 관한 역사적인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는 군의 폐쇄적 특성과 자료접근의 한계성 등으로 전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군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의 차원을 떠나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과 경제·정치·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시대적 경향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등 격동기에 국방체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동력이 된 평생교육의 주요경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념적 측면에서 국가적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국방정책의 목표인 의존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반공 민주군대로서 정신무장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성인 기초교육과 학교보완형 사회교육과 더불어 미국식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시민교육의 특징이 있다. 셋째, 평생교육 체제 측면에서 외세의 힘과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서의 교육적 특성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창군기의 군 평생교육은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부여해 주는 사회화 또는 국민교육도장으로서도 역할과 초창기 정신교육 및 군심결집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군 평생교육, 군 인적자원개발, 국민교육도장, 군 문맹퇴치운동, 병영문화

I. 서론

군 평생교육은 국방환경 및 병역제도의 변화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술집약적 군 구조 변화에 따른 지식기반형 인적자원의 충족을 위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개병제 하의 의무복무 장병들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군 조직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군복무가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가 아닌 '인생의 발전기, 도약기'로 인식이 전

* 제1저자: 박효선(410-7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마을 현대아파트 1201동 403호, phs6166@hitel.net)

환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되고 있다. 군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국토방위를 수행하기 위한 강인한 체력과 올바른 국가관 혹은 정신력 그리고 각자 군에서 맡은 바 임무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 측면의 군 평생교육과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국방환경의 변화, 국민개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안보환경, 평생교육의 전략화 추세 등 대외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이 평생교육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군 경쟁력 강화, 군대사회의 선진화, 장병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여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최병욱, 2006a: 20-21).

군에서의 평생교육(The Place of and Continuing Education in the Military)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모집, 유지 및 직무배치(개인관리 기능)와 둘째, 군대 훈련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고(군 직무수행 기능), 셋째, 개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인적자원개발 기능)하는 기능이다(Steve F. Kime & Clinton L. Anderson, 1989: 6). 다른 한편 Kauver G. & Tilson G.(1989)에 따르면, 제도화된 군내 성인교육은 항상 군의 수요와 연계되며 군 생활의 매력은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군과 독일군에서는 학습기회 제공을 군 기술수준 및 교육수준의 제고에 따라 정부가 군인의 사회복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군에서 평생(성인)교육에 대한 지지는 1778년 독립전쟁 동안 조지 워싱턴 장군이 휴한기에 고생하는 회복기 환자병사들에게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목사에게 지시한 데서 유래한다. 즉 병사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정신적 안정을 유지토록 한 것이었다. 2006년 현재 미 육군은 기존의 계속교육제도(Continuing Education System)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앞으로 '미 육군이 평생교육 조직으로 전환할 것(The Army will become a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 adopting a continuous process of education)'을 선언하였다(US Army, Army Continuing Education System: Army Regulation 621-5, 2006). 또한, 평생교육을 국방부와 각 군 차원에서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만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국방부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voluntary education으로, 육군은 중단 없는 학습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continuing education으로 명명하고 있다(최병욱, 2006b).

우리나라에서 군 평생교육(또는 군 인적자원개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의 사각지대, 이론의 불모지대로 남아 있었다. 접근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조직으로 고립돼 있었다(이희수, 2007: 33). 역사적 관점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군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는 최초 국방 인력개발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군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최초 언급한 연구의 효시는 한국국방연구원(1997)의 「21세기 대비 군 평생교육체계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군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어 김광식 외(1998)의 「21세기 대비 군-사회관계 발전방안연구」는 군의 역할을 경제 기술군, 국민교육군, 위민군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군내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도입하여 정책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실제 군 간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체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원격학습체제와 군 간부 병과학교의 학점은행제 도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적용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정책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이론 위주의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는 2002년부터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로 진행되다가 군에서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6년부터였다.

육군본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연구(백은순, 2006)는 「군 평생교육체제 정립 및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현황과 육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군 평생교육체제를 평생교육 기회제공 체제, 평생교육지원 체제, 평생교육 평가인증 체제의 세 하부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다음해 연구에서는 군 평생교육을 “개인의 자아실현과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고,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하여 군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에도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군 전체적으로는 국방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각종의 형식적 학교교육과 훈련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활동”이라고 하였다(백은순, 2007).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정책과 미국 및 일본군의 제도의 연구를 근거로 시사점을 찾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군 평생교육의 대상의 범주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체제를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동연구(이희수, 2006)는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국회와 정부부처 및 학계의 관심을 갖고 공청회를 거쳐 국방 평생교육정책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나, 기존 국방교육훈련 정책의 범주와 진행 중인 인적자원개발정책과의 연계성과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시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갈등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2년부터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연구되면서 역사적으로 문맹퇴치운동과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군사교육 이외의 각종 국가시책과 연계된 정신교육 및 기능기술인력 양성분야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발췌되어 활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창군기의 군 평생교육정책을 미군정기의 교육정책과 연관한 연구는 군에서 아주 빈약하다.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에 관한 국내 일차사료에 근거한 연구로는 이응호(1974)의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이다. 이응호는 한글보급 운동사 차원에서 문맹퇴치운동을 세밀하게 밝히면서, 이 운동은 ‘사상운동’이자 ‘정치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문교부와 국방부가 문맹퇴치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언급은 하고 있으나 그 규모나 성과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연구 논문으로 일본인 이나바(稻葉斷雄)의 ‘미군정 하에 있어서 언어정책 전개’는 한글보급운동 내지 언어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년체적 서술에 머무르고 있다(이항재, 2001: 58).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연구들에 의하면(황종건, 1985; 이희수, 1996) 미군정기의 성인교육 범주를 시설, 매스미디어, 행정조직, 학교형태의 성인교육, 민간단체의 활동, 부녀자 교육, 노동자 교육, 정치 교육, 교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였다. 성인교육(성인 문해교육)은 당시의 교육적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 문해교육의 목적을 공민성 함양과 민주주의 교육에 두고 문해교육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당시 한반도에 형성되고 있던 냉전의 기류와 맞물려, 일정한 힘을 얻어서 성인교육 정책이 수렴하게 된다(이희수, 2007: 54)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미군정기의 영어 학교와 공민교육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군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는 사회 전반의 학습 패러다임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군 창군기 평생교육의 역사적 태동과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역할과 의의를 조명해 보기 위한 연구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평생교육사에 관한 시기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창군기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에 군 평생교육의 전략 수립과 영향 등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모든 것이 부족하였으나, 자주국방의 건군이라는 열정만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국가적 이념과 반공 민주군대의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사상적 결집의 근간을 살펴보고, 군 평생교육 정책의 뿌리와 시대적 변천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창군기의 군 교육정책과 연계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알아보고 당시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군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군 평생교육은 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의무복무 장병과 직업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사회 단체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한 점에서 창군기의 관 주도하 평생교육 정책추진 현황과 민간부문과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창군기에 나타난 평생교육의 이념분석, 내용분석 및 체제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군의 평생교육에 관한 역사적인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는 군이라는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전무하였으며, 군에서조차 이러한 시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창군기 군 평생교육의 경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해방 후 창군기의 한국군 평생교육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진행되었는가? 이번 연구는 당시의 안보환경 상황(국제안보 및 한반도 정세), 국가능력(경제적) 상황, 교육적 상황에서

의 군 평생교육 정책형성과 추진을 살펴보았다.

둘째, 군에서의 평생교육 연구를 어느 시기부터 다루어야 할 것인가? 군대의 역할은 국가의 발전 정도와 군대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시대적 구분도 국가의 목표와 국방정책과 연계되어 구분하는 경향이다. 최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조영갑, 2007)는 비교국방정책학적으로 ① 국방체제 정립기(1945~1961), ② 자주국방 추진기(1961~1998), ③ 자주국방 발전기(1998~2000년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군에서 평생교육은 군사교육 이외의 성인교육 차원의 정책으로 주로 국가목표에 따라 군대의 역할이 변화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군 평생교육사는 ① 창군기(해방이후~1960년), ② 국가발전 추진기(1961~1987) ③ 통일국가 지향기(1988~2002), ④ 자주군대 완성기(2002~)로 대별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창군기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셋째, 군 평생교육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07년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2007. 12)됨에 따라, 정부는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신 평생학습시대’를 선포하였다(2007. 12. 5). 평생교육의 범주도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교교육 등 제반 학습활동을 포함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평생학습과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추진계획’을 국가인적자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2007. 12. 7), 군 평생교육의 정의를 “군 장병의 학습권과 교육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식(formal), 비형식(informal), 무형식(non-formal) 등의 모든 교육 형태와 군인가족 교육, 군사교육, 사회교육 등의 모든 교육영역을 포함하여 이를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는 총체적 교육이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창군기 독립국가 기반조성에 기여한 문맹퇴치교육, 일반교육, 전시군인연합대학, 반공교육을 위한 정훈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문맹퇴치 교육과 일반교육은 비교적 1차 사료의 획득이 가능하나, 정훈활동과 일부 지역별, 세대별 특성에 맞게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방법은 최운실(2007)의 해방 이후 한국평생교육의 초창기 모델인 문맹퇴치형 사회교육과 인력양성형 사회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보충형 사회교육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I. 창군기(해방 이후~1960년)의 군 평생교육 배경

창군기의 국제안보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정책 및 국방정책, 교육적 상황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군에서 이루어진 평생교육의 이념과 내용 등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한반도 정세 및 국방정책

해방과 더불어 독립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군대의 재건 사업도 제각각 귀국한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및 광복군에서 활약하던 군사 경력자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통합되지 못하였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13일에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Office of the National Defense)를 설치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25-27). 이 시기에는 국가 안보정책을 전담하는 통합기구나 제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 관련 부서로서 국가안보는 국방부가 주축이 되었고, 외교안보는 외무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방정책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적 자주국방정책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워낙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 없이는 존립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7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 국방정책은 국방조직 및 국방행정체제를 정립하고, 군사력건설과 교육훈련 제도화, 한국전쟁 수행과 전후 복구, 정훈교육 실시 등이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방체제 정립기(1945~1961)의 안보정책, 국방정책, 평생교육

구 분	세 부 내 용
안보환경	1. 국제안보환경 -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 시작 - 구소련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봉쇄 및 억제정책 충돌 2. 한반도 정세 - 남북한의 미·소 군정실시와 남한(민주국가)·북한(공산국가)의 정부수립 - 남북한 휴전선과 38선 확정 -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국가능력	1. 국가발전의 불균형 - 남한 : 농업지대, 북한 : 공업지대 2. 미국원조에 의존하여 국가정책 실현 노력 - 국가체제 확립/국가재건 - 건국초기의 정치적·사회적 혼란 - 남한 GDP는 북한의 GDP보다 열세 ※ 한국은 후천적인 농업사회 현황

(<표 1> 다음 면에 계속)

(<표 1> 계속)

구 분	세 부 내 용
안보정책과 국방정책	1. 국가안보정책 : 북진통일정책 -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와 오판 - 남한의 정치지도자/군사지휘자는 한국의 군사능력 과신 - 남한의 북침 우려로 미국의 소극적 지원 - 남북한 관계 : 상호존재의 불인정 2. 국방정책 : 의존적 자주국장 - 미군에 의존(국방조직 및 국방행정체계 정립,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 제도화, 한국전쟁 수행과 전후 복구, 정신교육 실시)
군 내외적 교육환경	1. 성인의 80% 비문해자 - 국민교육수준 저하(무학자 비율 86.6%) 2. 군사연어학교 및 해외유학, 군내 일반교육(公民教育), 전시연합대학 운용 기타 평생교육활동(복교조치, 숙사강좌, 연장강좌, 군 통신교육, 정훈선무 활동 및 문화활동 등)

※ 조영갑(2007). 「한국 국방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특징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226-267를 재구성하였음.

2. 군 내·외적 교육환경

해방 당시 한국 성인의 80%가 읽고, 쓰지도 못하는 비문해자였다. 1944년 일본측 인구조사에 따르면 남한의 1천7백만 인구 중 7백7십3만3천명이 비문해자였으며 이 중 4백만명이 국가 경제 및 정치활동의 주역인 18~45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일제시기의 학교교육이 한국어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본의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학력별 인구 구성 비율 면에서도 입증된다. 해방 직전인 1944년, 한국거주 총 인구 중 일본인 비율은 3%에 불과하였으나 종합대학 졸업자의 50%, 단과대, 사범대, 기술전문대 졸업자의 47%, 중등학교 졸업자의 44%, 2년제 중학교 졸업자의 73%가 일본인이었다(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Vol. 2 No. 5-12).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1944년 3.7년, 1960년 4.9년으로 무학자의 비율은 1944년 86.6%, 1960년 43.7%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 중 남자 가운데 중졸 이상의 비율은 1944년 2.1%, 1960년 19.5% 1970년 32.7%로 1970년 중반까지도 중졸 이상이 국민의 반이 되지 않았다. 이렇듯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1972년까지 신체가 건강한 젊은이는 모두 군에 징집되어 병사들의 교육

수준 역시 저조하였다. 특히 무학력 병사의 비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최소한 40~50% 이상, 1960년대 20%로 보고 있다.

<표 2> 14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분포(1944~1966)

(단위: 천명)

구 분	총 계	무학자	무학 비율	1~6년	7~9년	10~12년	13~14년	15년 이상	미상	
1944년	계	14,189	12,303	86.6	11.3	-	1.8	0.2	0.1	-
	남	6,950	5,440	78.2	18.4	-	3.0	0.3	0.1	-
	여	7,239	6,863	94.8	4.5	-	0.6	0.1	-	-
1960년	계	14,831	6,468	43.7	36.0	9.6	1.2	1.2	1.4	0.5
	남	7,300	2,231	31.8	37.8	13.7	2.0	2.0	2.5	0.4
	여	7,530	4,147	55.1	34.3	5.7	0.4	0.4	0.3	0.5
1966년	계	17,134	5,271	30.8	40.0	11.1	1.2	1.2	3.3	-
	남	8,457	1,822	21.5	37.7	13.8	2.1	2.1	5.5	-
	여	8,677	3,449	39.8	42.2	8.4	0.4	0.4	1.2	-

※ 출처: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60, 1970.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병사들을 충원받던 시대, 창군기부터 1960년대까지 군대는 이들에게 군대 직무를 맡기기에 앞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일이 더욱 시급하였다. 그것은 이들이 군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문자해독 이상의 기본적 교육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한국군과 국가발전, 1992: 211).

Ⅲ. 창군기 군 평생교육 활동

한국군의 창군과정은 1945년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쳤다. 첫째, 광복군 국내지대 편성과 군사단체 조직을 통한 창군운동과 둘째, 미군정의 경비대 창설 및 증편과정, 셋째,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정 등 세 단계를 거쳤다. 국군은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초대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을 광복군 출신으로 임명하였으며, 장병들에게 광복군의 후예임을 강조하는 국군맹세를 제정, 정신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경비대 시절에 임관한 장교숫자만큼 육사 7기 및 8기를 특별 임관시켜 경비대 체질을 개선하려 노력

하였다(한용원, 1990: 336-342).

창군과 함께 한국군은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은 1948년 9월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6월 말까지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였다. 그런데다 북한은 본격적인 군사력을 피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국내 공산주의자들이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한국의 안보상황은 극도의 위협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군은 창설되자마자 정규적인 훈련을 받을 겨를도 없이 게릴라 소탕작전에 전념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상황 속에서 초대 국방장관 이범석 장군은 군의 정신을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에 기초하여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국군 3대 선서문을 채택 암송하기도 하였다(국군 3대 선서문은 오늘날 국군의 사명과 같은 것으로 ① 우리는 선열의 업적을 따라 민족국가를 지키자. ②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③ 우리의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고 군의 사명을 다하자로 되어 있다). 한편 자유민주 체제수호를 목표로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갖고, 반공 민주군대로서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48년 11월 국방부내에 정치국을 설치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은 분단국가 현상을 더욱 고착시키고 3년여 전쟁기간 동안 남북의 사상자 및 실종자를 비롯한 인명피해가 300만에 달하였으며, 이재민 370만, 전쟁고아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 전쟁으로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집권화된 정권을 탄생시킨 원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대대적 파괴와 농업의 회생, 파괴된 산업시설 등으로 인하여 경제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도시화와 계층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전후 베이비 붐이 일어나 기록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다. 특히 한국군의 급격한 성장과 현대화된 조직체계의 정비에 수혜를 볼 수 없다. 이 점은 논자들에게 의해 1960년대 있게 되는 군의 정치개입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동아일보사, 1989).

창군기의 군 평생교육 활동은 인력양성형 사회교육으로 창군기 군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군사영어학교 및 해외유학과 문맹퇴치형 사회교육으로는 문교정책과 협력하여 추진된 군내 일반교육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 보충형 사회교육은 전시연합대학 및 공민교육 등과 더불어 군 체제 정립과 사상무장을 위한 정신전력 강화, 정훈선무활동 및 문화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인력양성형 사회교육

1945년 9월 7일 미국 육군 태평양지구 총사령부(사령관 : Douglass MacAathur 대장) 일만명령 제1호 포고(미국 육군 태평양지구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포고문)에 의하여 1910년 이

래 일본으로부터 식민통치가 끝나고, 주한미군사령부(사령관 : John R. Hodge 중장)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주한 미국 육군의 군정은 군정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민주적 행정의 절차에 따라 한국인을 훈련하고 또는, 한국화사업(Koreanization)을 통하여 한국 국민이 많이 참정하도록 하여, 이것을 감독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국방사, 1984: 178). 미군정기의 국방체제 정립기(1945~1960)의 안보상황과 국방정책과 연관된 한국군의 평생교육의 경향은 한국군장교들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군사영어학교 교육과 선진 군사교리를 배우기 위한 해외유학이었다. 군은 개병제를 바탕으로 징집된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훈련시키고 군대의 각 분야에 복무시켰다. 또한 많은 인력이 군의 필요에 의해 외국 혹은 국내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았고, 이들은 한국사회 전반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가. 미군정기 군사영어학교와 해외유학

군 관련 정규교육기관(경비사관학교, 병과별 학교 등)은 정규교육기관 이라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군사영어학교도 군에서 필요하여 교육을 시켰으나 개인은 물론 향후 군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은 지금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군정청이 1945년 12월 5일 서대문구 냉천동 소재 서울 감리신학교에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고, 교장에 미국 육군 장교(Rease 소령)를 부교장에 한국인(원용덕)을 임명한 이외에 미국 군인 3명, 한국인 3명을 기용하여 제1차로 60명이 입교하였다(Robert K. Sawyer, 1996: 12). 군사영어학교 출신 200명 중 1백10명은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되었고, 23명은 해방병단으로 임관되었으며 20명은 경찰과 군정청 통역관으로 채용되었다. 이들이 장성으로 진출하여 1969년까지 군 수뇌부를 형성하면서 군의 발전에 공헌한 바도 있으나 창군이념을 창출하지 못했던 점과 장기간 군에 정체하면서 후진들의 진출에도 장애가 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한용원, 1984: 74).

한국군의 규모가 확장되고 무기 및 장비를 갖추고 전투력 발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능력을 갖춘 장교와 부사관의 양성이었다. 이를 위해 1951년 장교교육과 군사훈련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작성되었고 이 계획에 의해 교육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수많은 한국 장교와 하사관을 선발하여 미국의 군사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다. 1951년의 경우 미국의 보병학교에 150명, 오클라호마의 포병학교에 100명, 2차로 250명의 장교가 특별반을 형성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영관장교들이 미국 참모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해외유학은 자질을 갖춘 군사학 교관 및 선진기술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필요는 1953년부터 통역장교반, 장교군사영어반 및 특별군사영어반 등의 어학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수백명씩 교육시켜 1974년까지 10,542명을 배출하여 이

를 바탕으로 선진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211).

2. 문맹퇴치형 사회교육

건군과 더불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국방부에서는 1949년 1월 20일 긴급 대통령령으로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 조치령을 공포하여 호국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그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5개 여단 10개 연대로 증가하였으나, 무기와 장비는 없는 상태에다가, 그나마 정치적인 문제로 1949년 8월 6일 병역법(법률 제41호)이 공포되면서 해체되고 청년방위대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6월에 이르러 20만명 규모의 청년방위대의 본격적인 훈련에 착수할 무렵 전쟁이 발발하여 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국방군사연구소, 1998: 114). 이러한 정책적 실수로 인해 국가총력전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가두모집이나 강제 징·소집 등 임기응변식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9월 이후 전열이 정비되면서 체계적인 병력충원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군 입대자의 학력 수준이 너무 낮아 부대통솔과 전투임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휴전 직후, 육·해·공군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234,954명에 달하였다(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342). 이들 문맹자 중 일부는 휴가 때도 혼자서는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동향인과 같이 휴가를 보내야 했다.

가. 군내 일반교육(公民教育)과 문맹교육(文盲教育)

군에서 일반교육이 실시된 유래는 1949년 보병 제7연대에서 지역중등학교 교사를 초청하여 장병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중학교 졸업장을 수여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병사의 문맹퇴치에 주안을 두고 군내 공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휴전과 더불어 당시 전 군 내의 23만여 명에 이르는 문맹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육각서가 하달되어 일일 2시간의 한글교육을 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지시되었다.

1953년 국방부 정훈부장(안동준 대령)은 미군의 USAFI제도(통신교육식 군내 대학교육 및 학위강좌 교육)를 참고로 공민교육의 강화를 기도하면서 공민교육이라는 명칭을 군내 일반교육으로 개칭하였다. 1954년 국방부 정훈국 주관 3군 정훈감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정훈공작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일반교육은 국민초등교육, 고등공민교육(초급 중학교)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장병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계속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각서 제24호(1955. 8. 20)가 지시되었으며, 문맹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I. 문맹교육(文盲教育)

①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장병에게 문맹교육을 실시하여 완전퇴치시켜야 하며 차(次)문맹교육과정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② 훈련소에서 배출되는 신병은 문맹자가 전무(全無)하여야 한다. ③ 각 훈련소는 이 문맹교육을 위하여 한글학교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당(日當) 8시간, 주당(週當) 44시간 6주 교육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며 국어는 220시간, 셈본 44시간을 교육한다. ④ 훈련소를 제외한 기타 부대는 문맹자가 있을 시 또는 문맹교육을 받은 자 중 문맹자로 재분류된 자에 대하여 전방부대는 각 사단에, 제2군 예하부대는 각 관구(管區)에, 기타 부대는 부대 자체에 각각 1개의 한글학교를 설치한다.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된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는 미 군정기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정책의 차원에서 초등교육 의무화와 문맹퇴치, 국민계몽이 현안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던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은 당시 문교부·내무부·국방부 합동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국민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기호에 의한 '작대기식 투표 일소'를 위한 국민의 완전 문맹퇴치를 목표로 한 것이다(이완교, 2002: 49).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는 사격, 방어 등의 전술학 교육은 물론 사상무장, 국가관 확립 등 정훈교육을 위한 조치로 적극 추진되었다고 보인다. 창군 이후 문맹교육 수료인원은 <표 3>과 같이 1953년까지 356,576명,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총 188,241명으로 연평균 20,915명, 그 이후 1963년부터 1970년까지 총 42,481명으로 연평균 5,310명이었다.

<표 3> 창군 이후 문맹교육 수료인원

연 도	인 원	연 도	인 원
창군 - 1952	148,553	1962	16,764
1953	208,023	1963	8,432
1954	76,012	1964	2,343
1955	34,976	1965	6,155
1956	23,511	1966	4,529
1957	15,477	1967	4,721
1958	10,444	1968	7,785
1959	6,447	1969	7,986
1960	14,224	1970	531
1961	12,677	총 계	587,298

※ 출처: 국방부. 군대와 국가발전 자료집, p.35.

이러한 문맹교육에 대한 결과는 시작당시 23만여 명(육·해·공군 포함)이었던 문맹자와 그 후 입대한 문맹자를 포함한 50만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이 문맹교육을 수료함으로써 군의 무형 전투력은 급속히 향상되었음은 물론 문교정책에 기여한 바가 실로 크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일자무식의 자식이 편지를 쓰게 되어 군민유대와 국민교육도장으로서 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군에서는 부대지휘와 사고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직접 문맹퇴치 교사의 소감을 들어보면 그때의 교육을 이수한 장병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문맹자 교육은 실로 경쟁적으로 연대별 임시막사에서 실시되었는데, 교사는 물론 부대의 지원은 적극적이었다. 1~2주가 지나면서 그전에는 스쳐 가던 표어나 포스터를 유심히 보게 되고, 교육용 궤도를 읽는 병사들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부대 내 사고가 현저히 줄고, 시간에 대한 개념, 책임감, 위생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특히 이미 장가를 간 나이에 입대한 병사가 아내와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감격하여 흐느껴 우는 병사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당시 11사단에 근무하던 교사 김승호(80세) 소감).

3. 학교교육 보충형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보편화는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을 위시한 기초교육의 확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UNESC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이 주로 제3세계 국가 국민들의 문자해독과 기초생활교육의 세계적 확산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정경순, 2006).

가. 기본 및 공민교육

이미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의 문자해독을 위한 문맹자 퇴치와 더불어 기본 및 공민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교육각서 제24호 중 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I. 기본교육 및 공민교육

① 기본과정 및 국민과정 교육은 공민학교에서 실시한다. ② 공민학교는 각 사단에서 5개 학교(사단사령부, 각 연대, 포병단에 1개씩)를 설치하며, 관구사령부, 단, 창, 병원, 각 학교, 훈련소, 형무소 및 독립연대에 각 1개 학교를 설치한다. ③ 기본과정 교육은 국민학교 1~4학년의 교육, 국민과정 교육은 국민학교 5~6학년의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다. ④ 기본교육과목은 국어, 사회생활, 과학, 셈본, 농사짓기이며 일당 8시간, 주당 44시간, 학년당 6주간, 과정당 12시간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II. 중등교육

① 이는 중학교 1~3학년 과정 교육으로서 국민학교 교육수료자 및 민간중학교 3학년을 완전 수료치 못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교 및 상사급에 한하여서는 집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이 집체교육은 의무적이며 고등공민학교에서 실시하며 고등공민학교는 육군본부, 각 군 사령부, 교충본부, 각 군단 사령부와 단, 창에 1개 학교씩 설치한다. ③ 기여의 대상자는 통신강의록으로 실시한다. ④ 고등공민학교 교과과목은 국어, 영어, 과학, 역사, 지리, 문법, 공민, 생물이며, 일당 8시간, 주당 48시간, 학년당 5주, 과정별 15주간 실시한다.

III. 고등·대학교육

이는 모든 통신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강의록에 의하여 실시한다.

문맹퇴치와 국민의 기초교육을 위주로 설립된 공민학교는 고등공민학교와는 달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직업, 기술을 익히기 위한 중학교 단계의 기술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고등기술학교가 1949년 말 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설립 운영되었다.

군은 1954년부터 1~4학년 과정을 교육시키는 12주간 기본반을, 국민학교 5~6학년 수준 과정을 12주 동안 교육시키는 국민반을, 1955년부터 중학교 1~2학년 15주 중등반을 개설하여 병사들의 수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군 일반교육과 사회교육체계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군 일반교육과 민간 사회교육체계 비교

구분	대상	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
민간사회학교교육	문맹	국민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대학교 1~4학년
군 일반교육 (최초)	성인과 (문맹)	공민과	고등공민과	고등급	통신식 교육
군 일반교육 (개정 후)		초등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교육	대학교육

※ 출처: 국방부(2007). 건군 5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146.

1955년 8월 20일 교육각서 제24호에 곧이어 국방부 정훈국에 군내 일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군내 일반교육위원회령을 일반명령 제5호로 제정하였다(국방부 정훈국, 1956). 당시 군내에서 왜 많은 경비와 병력을 소요해 가면서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 일반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원회 운영의 목적과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목 적

첫째, 군인의 질적 향상이다.

둘째, 여가의 선용이다.

셋째, 민간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이다.

II. 원 칙

첫째, 군내의 일반교육은 어디까지나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지능을 부여하여야 하며,

셋째,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군 교육은 일반교육 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과 원칙 아래 군내 공민교육은 휴전기간을 이용하여 북한 공산군 재침에 대비한 군의 능력증진을 위해 채택된 것이라 보인다. 또한 이때 사용된 교재는 한글교본 및 공민독본으로 국방부 정훈국에서 1954년 9월 30일부로 5,000부 및 3,000부를 발간하였다.

또한 고등학교급 교재와 대학급 교재는 고등공민학교 학생과 전시 군인 연합대학 입교자가 사용할 교재로서 1955년 4월 5일과 6월 20일 각각 3,000부와 12,000부를 발간 배부하였다.

특히 공민독본은 문교부에서 발행한 성인교육용 공민독본을 군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 4권으로 국방부에서 복제 발행하였다(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435).

이와 같이 1954년부터 실시된 공민교육은 기본반에서 9년 동안 총 129,554명으로 연평균 14,394명, 국민반은 1954년부터 1969년까지 총 129,554명으로 연평균 10,120명, 1955년부터 실시된 중등반에서는 총 273,067명, 1969년까지는 연평균 19,504명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20만 명에서 수만명이 교육을 받았다(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344).

<표 5> 공민학교 수료자 현황

구 분	기본반	국민반	중등반
1954	42,366	21,467	
1955	42,747	32,595	7,607
1956	24,422	23,491	9,577
1957	12,088	12,098	788
1958	8,361	3,510	111
1959	8,126	2,474	
계	138,689	95,638	18,083

※ 출처: 육군본부 정훈감실. 정훈 50년사, p.344.

나. 전시 군인연합대학

오늘날 군 간부 정예화를 목표로 장교는 대학원(석사학위), 부사관은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에 입대하는 병사의 83% 이상이 전문대학 및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하고 있어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 여건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에 포함된 군 인적자원개발 중점은 ① 군 장병의 직무능력 향상 ②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 지원 ③ 국방인력의 능력개발이다. 특히,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여건 마련을 위해 병영 내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적 근거(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를 마련하였으며 연간 6학점 이내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시에 우리 군에서도 연합대학을 창설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1953년 7월 휴전이 되자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한 학도(學徒)출신 장병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 주자는 여론이 일어나자, 국방부에서는 1954년 1월 25일 3개안을 마련하였다. 제1안은 군단별로 교육부를 설치하여 연 80일간 면접 수업하는 안이며, 제2안은 국방, 문교 양부의 합의로 발간되는 강좌로 통신교육을 실시하는 안, 제3안은 전시 군인연합대학(당시 전시 국방대학) 교육진행요령 안이었다. 손원일 국방부장관은 국가예산과 군사교육 및 각 군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최소 단위의 규정을 가진 제3안으로 결심하고 문교당국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때 문교부와 협조된 내용은 전시 군인연합대학에서의 교육가능 범위를 인문, 사회계통은 3학년까지, 자연과학 계통 중 응용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1학년, 기초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2학년 과정까지 각각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954년 2월 7일에 전시 군인연합대학 창설에 관한 국방부 일반명령 제110호가 하달되었다. 1954년 1월 25일 개교한 전시 군인연합대학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각 대학의 교수 및 각 대학 저명인사 60여 명을 위촉하여 제1학년도

1,285명, 제2학년도 3,5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군내의 제반 여건이 불비하여 개교 2년 만인 1956년 1월 19일부로 폐교하였다.

<표 6> 전시 군인연합대학 이수자 통계

연도	학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합계
		장교	병	장교	병	장교	병	장교	병	장교	병	
1차 년도	1	605	-	18	25	39	14	7	16	669	55	724
	2	476	-	1	15	14	21	14	20	505	56	561
	소계	1,081	-	19	40	53	35	21	36	1,174	111	1,285
2차 년도	1	820	22	2	29	32	8	26	23	880	82	962
	2	785	18	-	61	53	16	48	26	886	121	1,007
	소계	1,605	40	2	90	85	24	74	49	1,766	203	1,969
총 계		2,686	40	21	130	138	59	95	85	2,940	314	3,254

* 출처: 국방부. 국방사(1950. 6~1961. 5), p.284.

다. 기타 평생교육 활동

군 평생교육 연구의 범위를 2007년 현재 국방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오늘날의 주·야간 위탁교육에 해당되는 복교조치(復校措置), 군내 부설대학 설치운영제도인 숙사(宿舍) 강좌,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이나 통신대학에 해당되는 군 통신교육 등이 활발히 운영되었다. 인원도 전시 학도병의 입대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장병들에게 수학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국가적 시책과 군에서는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장병의 자질향상과 동시에 군사훈련의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1) 복교조치(復校措置)

전시연합대학의 교육범주가 제한되고 이 범주 외의 일반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장병들의 계속교육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부와 ① 전시 군인연합대학의 정규대학화 ② 예비역 편입 후 복교 ③ 위탁교육 ④ 통신교육식 교육의 4가지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② 항이 채택되었다. 이 방식은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장병을 수학(修學)기간 동안에 예비역으로 편입시켜 일반대학으로 돌아가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군으로 복귀하는 제도이다.

국방부 정훈국에서는 복교조치 대상자를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의 가(假)졸업자 및 인

문, 자연, 각 과학계통 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12월 31일까지 입대한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 같은 원칙에 의해 파악된 대상자는 951명으로 일시에 예비역으로 편입시 부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1차로 5학년에 재적한 장병 344명만 복교토록 하였다. 그러나 문교부에 학적조회 결과 최종 확인된 대상자는 97명(육군 88, 해군 1, 공군 5, 해병대 3)에 지나지 않았다. 제1차 복교조치는 1955년 5월 6일에 97명을 대상으로 복교식을 갖고 복교조치되었으며, 이후 5차에 걸친 복교조치를 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으나, 1955년 7월 14일부로 관계 업무가 정훈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되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세부적인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2) 숙소강좌(宿舍講座)

복교조치 대상자에는 해당되지만 부대 운영상 예비역으로 편입시켜 공부하도록 허용할 경우 전투력 공백이 우려되어 근무부대 인근의 대학으로 야간대학 편입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숙소강좌는 1954년 9월에 전남 광주의 조선대학교 2부 야간과정에 당시 광주에 있던 교육총감부(教育總監部) 소속 장병이 입교하여 수학한 것이 최초였으며, 그 후 국방부와 문교부가 협조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지로 확대하였다. 최초의 인원 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아니며, 1956년부터 육군본부에서 파악하여 1959년까지 실시한 실적은 <표 7>과 같다.

<표 7> 숙소강좌 실적현황(1956~1959)

구분	계	정치대	국제대	청주대	동아대	조선대	국민대	한양공대	단국대	기타
1956	2,501	327	75	468	681	950				
1957	2,419	237	55	560	940	428	19	22		158
1958	2,119	207	22	304	966	361	31	31	29	174
1959	2,398									
계	9,437									

※ 출처: 육군본부 정훈감실. 정훈 50년사, p.353.

1956년 2,501명, 1957년 2,419명, 1958년 2,119명, 1959년 2,398명으로 2007년 현재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향학열에 불타 있었으며, 국방부와 문교부의 지원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인적자원은 전후 군내 정화와 국가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군 통신교육

군 통신교육제도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는 장병에게 군 내에서의 계속공부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1955년 관련 법규인 군 통신교육령이 제정 발표되었다(국방부 정훈국: 1955: 188). 주요 내용은 ① 군 통신교육의 범위는 중학교, 고등학교(인문, 자연 구분) 및 대학(인문, 사회과학계통은 2학년 과정, 자연과학계통은 1학년 과정까지)이며, ② 국방부에 통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기관을 설치, 장병 1,000명 이상 각 군부대는 군 통신교육지도소를, 1,000명 이하는 군사령관의 승인 하에 군통신교육소 설치하고 ③ 대학 및 고등학교에 재적 중 입대한 자에 대해서는 군 통신교육을 통하여 획득한 성적을 학점 또는 이수료 인정하고, 민간학교에 재적하지 않는 자로서 군 통신교육을 이수한 자는 문교부 시행검정고시를 통한 자격인정 등이었다. 실로 앞을 내다보는 혜안의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군 복무중인 장병의 학점인정을 위한 정책을 관련부처 및 국회를 설득할 때 이러한 자료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은 대응자료가 될 뻔하였다. 군 통신교육령에 의해 실시한 각 과정별 통신교육 실적은 <표 8>과 같다.

<표 8> 군 통신령에 의한 통신교육 현황(1955~1959)

구 분	계	중 등	고 등	대 학
1955	52,278		13,374	10,802
1956	43,206	22,429	12,980	7,797
1957	43,784	26,450	11,378	5,956
1958	45,764	28,803	12,666	4,295
1959	12,055	8,000	4,055	
계	197,087	113,784	54,453	28,850

※ 출처: 육군본부 정훈감실. 정훈 50년사, p.353.

통신교육의 시사점은 첫째, 각 분야의 범위는 일반사회의 교육과 차이는 없으나 대학교육에 한하여 전공과목 및 실습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제한을 두었으며 둘째, 군 통신교육소를 설치하여 교육업무에 대한 상담, 등록, 고시(考試), 보급 및 일반행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셋째, 대학교육에 한해서 학년과정의 1/4을 면접교육(출석수업)시켰고 넷째, 통신교육을 통하여 획득된 성적을 학점과 과목이수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4) 정훈선무활동 및 문화활동

미군정기에 성인교육(성인문해교육)은 당시의 교육적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

로도 중요한 관심사(이희수, 2007: 54)로 여겼으나, 좌우익의 이념적 분열대립 현실에서 장병들의 의식성향과 이념무장의 중요성 등은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1948년 11월 29일 국군 조직법에 의해 정훈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제2국(정치국)을 설치하면서부터 사상통일과 반공정신 함양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조직에 의한 정규적인 정훈교육 활동 외 정훈선무활동 중 사료의 기록이 남아 있는 활동 위주로 살펴본다. 창군과 함께 장교들의 군교양지가 필요하게 되어 국군기관지 「국방」을 월간으로 정훈국 보도과에서 발간하였으며, 그 명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제작한 최초의 간행물은 북괴군 진지를 육탄으로 파괴하여 전승한 충성심과 용감성을 장병들에게 주지시켜 멸공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발간한 「육탄 10용사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최초의 신문은 1949년 7월 1일 육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창간된 주 2회 발간의 「철군(鐵軍)」으로 인쇄는 서울신문사에서 위탁하였다. 이후 제23호부터 「국방신문」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화랑신문」, 「승리일보」로 바꾸어 발간되다가 폐간되었다(육군 정훈감실, 1991: 362~375).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 오다 「육군신문」으로, 1964년 11월 16일 「전우신문」 창간으로 이어졌다. 기타 활동으로 정훈공작대 지방순회공연과 월남군인 환영대회, 사진전시회, 전국 중등학교 포스터 전람회, 노획품 전시회 등이 실시되었다(한국언론연구원, 1983: 952).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는 주로 대민 대적 선무선전 및 아군장병에 대한 전의교양 위주로 활동해 왔던 문화활동은 전후 점차 부대가 정비되고 정상적 병영생활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문화활동의 형태도 전시에서 평시로 전환되어, 주로 집결된 부대를 대상으로 군가 가창교육, 영화상영, 웅변대회,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활동으로 활기를 띠었다. 군가, 영화 등의 활동과 더불어 간담회, 환영대회, 웅변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장병의 사기를 앙양시킴은 물론 군민유대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정훈활동 중에는 1951년 10월에 군가 보급단을 설립하여 군가보급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이나 일반국민에게도 전파하기 위해 군가 레코드를 제작 보급하였다. 그 당시 군가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대중가요처럼 불리게 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에는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증가되었는데 문예작품 모집행사는 장병들의 문화적 교양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일반문화계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각종 전시회는 군 장병은 물론 대외적 군 홍보를 위해서 해당 분야에 소질 있는 장병들에 의하여 출품된 사진, 미술, 만화, 포스터 등의 전시행사를 각 부대별로 실시하였다. 모든 여건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즘 지역별 평생교육 축제와 유사한 활동 등이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IV. 결론

해방 이후 창군기(1945~1960)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평생교육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군 평생교육은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징집된 젊은이들을 군사교육 훈련시키고, 수많은 인력을 외국 혹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과 더불어 일반교육 및 자유시민의식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사회 전반에 민주질서와 행정체계 발전 등 국가형성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해방 이후 한국평생교육은 초창기 모델인 문맹퇴치형 사회교육과 인력양성형 사회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보충형 사회교육을 발전시켜 한국평생교육의 지평을 여는 산파기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최운실, 2007). 창군기 군에서의 평생교육의 모습도 군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군사영어학교 및 해외유학과 문맹퇴치형 사회모델로서 문교정책과 협력하여 추진된 군내 일반교육, 학교교육 보충형 전시 연합대학 및 공민교육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더불어 군 체제 정립과 사상무장을 위한 정신전력 강화, 정훈선무활동 및 문화활동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평생교육은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창군,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등 파란만장한 격동을 이겨내며 한국의 국방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동력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방 후 창군기 군 평생교육의 경향을 이념적 측면, 내용적 측면, 체계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적 측면에서 창군기 군 평생교육은 국가 및 군의 이념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국가적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국방정책의 목표인 의존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반공 민주군대로서 정신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으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청과 우익단체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영어교육 및 유학으로 상부층 엘리트교육과 전시연합대학, 문맹퇴치교육 및 기타 일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사상과 반공정신을 투철하게 심었다. 군에서 실시된 일반교육은 군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 및 국가관 확립은 물론 국민기초 생산능력을 키우는 「시민교육」으로서 큰 몫을 하였다. 나아가 개인의 자기계발과 학력증진을 통해 군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방 후 혼란기의 국가 정체성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인기초교육과 학교보완형 사회교육과 더불어 미국식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시민교육의 특징이 있다. 성인교육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확충과 관련된 문해교육을 포함한 일반계몽, 국민 재교육, 국민정치교양, 성인지도자 양성, 일반교육(공민교육) 등이었다. 또한 정치교육은 미군정청 시책공보와 민주주의 교육, 사상교

육, 선거계몽교육, 반공교육과 자연스럽게 미국식 엘리트 의식을 만드는 영어교육과 미국유학 등이었다. 기타 내용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였다. 이렇듯 창군기의 군 평생교육의 내용은 미국식 군대체제 정립을 위한 군사교육과 사상무장, 국가관 확립이 우선이었으며, 제대 후 올바른 시민으로서 활동토록 하기 위한 국민교육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평생교육체제 측면에서 외세의 힘과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서의 교육적 특성을 보인다. 학습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학습이 가능토록 모든 행위요소가 상호 통합되어야 하나, 군 조직이 생성되는 혼란기로 다소 어수선하였지만 나름대로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또한 각종 문화활동은 지역주민과 관계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운영되었다. 군 평생교육은 고유의 상명하복식 명령체계 특성상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올바른 목표설정과 함께 하부 구성원의 욕구를 존중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창군 이후 군 평생교육은 초창기 한국사회에서 문맹퇴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학교 다음으로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극히 미진하였다. 단지 피상적으로 ‘군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되었다’는 정도였다. 이제라도 올바른 평가가 되도록 충분한 자료발굴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삼근(2005). **한국평생교육의 사회철학적 과제**. 서울: 집문당.
-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방부(1945-1960). 국방부 인사, 작전명령 관계철(다수). 국방부 문서보관소.
- 국방부(1956). **정훈대계 I·II**. 서울: 국방부.
- 국방부(1958). **국방의 당면과제 1권**. 서울: 국방부.
- 국방부(1984). **국방사 I**. 서울: 국방부.
- 국방부(1987). **국방사 II**. 서울: 국방부.
- 국방부(1988). **국방사 III**. 서울: 국방부.
- 국방부(1998). **건군 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권대봉(2003).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서울: 학지사.
- 김광식 외(1998). **21세기 대비 군-사회관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김남선(2001). **평생교육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박효선(2006).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성과와 과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그 과제와 정책. 세미나 자료. 서울: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 백은순 외(2007). **군 평생교육체계 정립 및 구축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육군본부(1945-1960). **인사 참모부사(1차 사료)**. 서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육군본부(1991). **정훈 50년사(1940~1989)**. 서울: 육군본부 정훈감실.
- 이상오(2000). **평생교육사회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호((2004).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서울: 원미사.
- 이완교(2002). **평생교육 정책론**. 서울: 학문사.
- 이용호(1974).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 서울: 성창사.
- 이정표(2003). **학교-군-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 기본연구 03-2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인 외(1997). **21세기 대비 군 평생교육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인96-1189.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이항재, 이희수(1994). 미군정기 성인 문맹퇴치 운동의 정치적 동인. 순천향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 55-86.
- 이희수(1996). 미군정기 성인교육의 정치사회화 기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희수(1997). 미군정기 농민 정치교육소사. **한국교육사학** 19.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298-323.

- 이희수(2007). 초기 평생교육학의 태동과 발전. 한국 평생교육학 40년의 회고와 전망. 학회 4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68-71.
- 이희수 외(2007).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6-15.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 최병욱(2006a). 군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의의와 정책 방향. 주간국방논단 1118.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최병욱(2006b). 군 인적자원개발 성과와 과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국회세미나 자료.
- 최운실(2007). 산파기로서의 1980-1990년대 한국 평생교육학의 동향. 한국 평생교육학 40년의 회고와 전망. 학회 4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127.
- 한국언론연구원(1983). **한국신문 100년사**. 서울: KBS.
-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평생교육 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화랑대연구소(1992). **한국군과 국가발전**. 서울: 육군사관학교.
- 稻葉斷雄(1987). **美軍政下에 있어서 言語政策의 展開**. 解放後 韓國의 教育政策. 서울: 한국연구. 119-166.
- Colin J. Titmus(1989).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An international handbook*. University of Leeds. UK. Pergamon Press.
- Kauver G. & Tilson G.(1989).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An international handbook. Education in the Armed Forces*, 357-60.
- Longworth N.(1999).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London: Kogan Page.
- Robert K. Sawyer(1996).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 US Army(2006). *Army Continuing Education System: Army Regulation 621-5*. 19.
- Steve F. Kime & Clinton L. Anderson.(1989). *Education vs. Training: A Military Perspective*. 6.
- Underwood, H. H., Advisor to Director Department of Education(1947. 8). Where we stand in education today. Headquarters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19 August 1947. 李吉相 編(1992). **해방전후사 자료집 II-미군정 교육정책**. 서울: 원주문화사.

- 논문 접수 2007년 11월 7일 / 수정본 접수 12월 17일 / 게재 승인 12월 19일
- 박효선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인사관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중앙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음.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 정책담당을 거쳐 현재 국방부 평생학습정책 담당으로 재직 중이며,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과 평생학습정책을 기획하여 국가 정책화 하는 데 기여하였음. 연구관심 분야는 군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이러닝을 활용한 군 학습조직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평가 등임.

Abstract

**Analysis on the tendency of Korean military life-long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founding of the Armed
Forces after Korean liberation**

Park, Hyo-Sun(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urpose of Military training exercise is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missions of the military; however, as the enlisted members become discharged and return to society, the skills obtained through training exercise play a vital role on personal as well as social level. As a nation that is practicing a conscription system, the impact of the military's life-long education system on our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let alone on individual growth, cannot be underestimated. The role of the military is bound to change depending on the phases of the times, as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degree of a nation's development and the systematization of its military. In this paper, the role and the purpose of our military life-long education, from its inception till 1960, will be discussed by carefully examining the trends of the time. The Army's role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cluded anticommunist education, the eradication of illiteracy and the development of patriotic perspective, all of which had greatly contributed to the ideological cohesiveness and the combat strength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education had also helped improve the overall level of socialization and citizenship, two qualities intrinsic to the members of a developed society.

* Key words: Military life-long education, Military human resource development